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도내 7개 해변 방역점검 확대

가등급 3개 · 나등급 6개 · 다등급 4개 · 라등급 2개 기관

도정 발전 연계성 · 공공적 책무 · 사회적 역할 등 경쟁력 강화

전북도는 12일 2021년 제6차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2021년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 회계사,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대면평가, 기관장 면담평가 등을 거친 후 2차례의 이의신청을 거쳐 2020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 3개 기관, '나등급' 6개 기관, '다등급' 4개 기관, '라등급'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률 준수 배점을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

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지표를 신설하였으며, 도정 발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북형 뉴딜정책 대응 지표 및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공헌도 지표를 신설하여 출연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 실현 성과 및 전북발전 견인 기여도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였다.

또한, 2020년이 코로나19가 발병한 해인 점을 감안하여,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 불가 및 목표 대비 달성도가 낮아진 사업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기관별 지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지표의 변경 및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낮아진 목표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난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배점을 상향조정 하는 등 평가기준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2021년 경영평가 역시 작년 경영평가 시 처음 도입한 PDCA(계획-실행-확인-환류) 방식의 평가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평가의 체계화와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시켜 출연기관들의 지속적인 업무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과 개선방안을 이어나갈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기관 사업에 반영시켜 성과에 연계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컨설팅 실시 후 연말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에 대해 기관의 임무와 기능, 전략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출연기관 등이 설립 기반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출연기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해수욕장 중심 점검에서 방문객 많은 인근 해변까지 방역 철저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수욕장 중심의 점검에서 도내 7개 해변까지 방역망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 동호,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춘 가운데 문을 열었다.

도와 시군의 방역체계와 방문객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한 달간 해수욕장 중심의 코로나19 전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더 나아가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방문객이 많이 찾는 해변 지역에서도 방역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엔 방역점검이 확대되는 해변은 군산 3개소(신시도 몽돌, 선유1구 옥돌, 선유3구 몽돌), 고창 1개소(해리면 명사십리), 부안 3개소(변산면 대항, 고사포, 공항) 등 7개소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주변 펜션 공용화장실, 식당 등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다중이용업소 및 편의시설에도 방역 준수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변가 출입로 입구 등에 개인 방역준수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 주민과의 방역관리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한편, 해당 지역 등은 해양사고 안전요원과 시설이 없어 물놀이 중 익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할 해양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순찰 등을 병행하여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덕 도 해양항만과장은 "그동안 해수욕장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인근 해변도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메타버스 산업 육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가져

전북도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산업 육성 대응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메타버스 추진에 따른 산업 육성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계를 말한다. 가상세계에 마련되어 있는 기업, 상점, 테마파크 등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는 등 관련 산업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실의 불편함을 메타버스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는 만큼 전북도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북도는 메타버스 협의체 구성, 메타버스 종합계획 수립,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중앙공모참여, 전북형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메타버스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경쟁도 가열되는 상황이다"며, "메타버스는 5G, 플랫폼, 콘텐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전북도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중일 온라인 친선바둑대회 성료

3개국 32명 참여... 전북도 종합순위 1위 차지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중일 바둑친선대회가 3일간의 치열한 혈전을 마치고 1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와 자매우호 지역인 중국 장쑤성의 인민정부 의사관공실과 체육국이 주최하고, 전북도 국제협력과, 체육정책과, 전라북도바둑협회가 협력한 가운데 경기도, 중국 장쑤성, 일본 오사카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표해 선수들이 참여했다.

본 대회는 3개국 총 32명이 7라운드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전북도는 비록 개인랭킹 1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3위부터 전북도 이름표를 단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며,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날 1~16위 선수에게는 성적증서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전북도는 신동목 선수(7단)를 포함해 도내 아마추어 3단 이상 선수 8명이 참가하여 중국 장쑤성, 일본 오사카, 한국 경기도 팀과 치열한 승부 끝에 단체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전북도 바둑의 자존심을 지켰다.

바둑교류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국내대회는 많이 참가해 봤지만, 국제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만큼 경기도중 쓰러린 경험도 맞아야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 이겨 놓은 경기를 실수로 바턴 하나를 누

르지 않았거나 마우스가 먹통이 되어 두 번이나 시간패를 당한 선수도 있었다.

이날 참가한 신동목 선수는 "처음 하는 온라인 경기라 좋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라북도바둑협회장은 "전북도는 이창호 국수를 배출한 고장으로 다시 한번 바둑을 널리 알리고 또한 친선교류대회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대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적인 공용 놀이문화인 바둑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류 시기에 온라인으로 가장 적합한 경기종목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그 장점이 부각되었다"면서, "앞으로 전북도는 중국, 일본 자매우호 지역과의 바둑 국제교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중일 온라인 경기로 삼국의 선수들이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에 담아 상대 선수들과 바둑 경험담을 공유하고 다음 대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바둑의 열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열띤 경기 속에 마쳤다. /유호상 기자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중일 바둑친선대회가 3일간의 치열한 혈전을 마치고 1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내 수산물 위·공판장 위생안전관리 '합격'

도내 수산물 위·공판장에 대한 위생은 합격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수산물 위·공판장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수산물 보관 온도의 적정성 및 설치류 등의 유입 방지, 위판장 시설 소독 및 관리 실태 등 12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도구 정리 정돈 및

소독일지 작성 미비 등의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수산물 위·공판장 7개소 중 현장에서 위판을 진행하는 고창수협 위판장(산지 위판장) 1개소를 제외한 군산 수협의 해방동, 비응항, 선유도, 중동 위판장과 부안 수협의 격포 위판장, 수협 중앙회가 운영하는 전주 농수산물공판장 등 6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